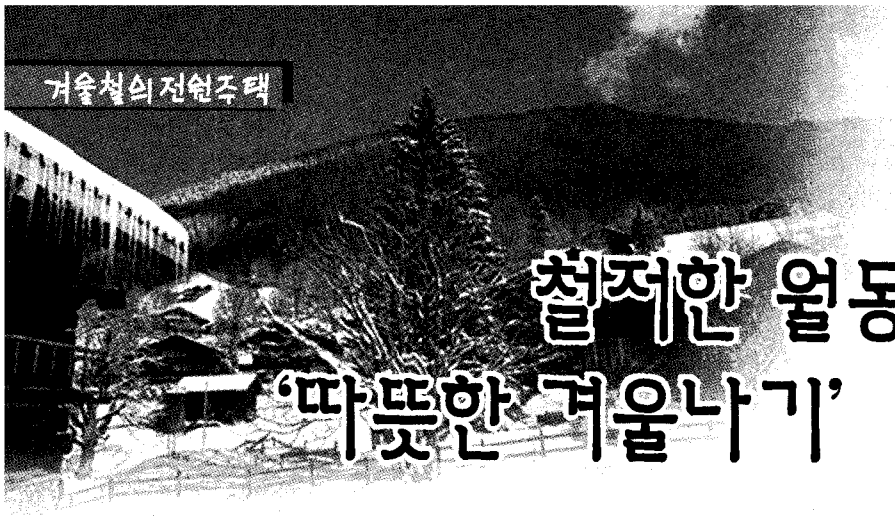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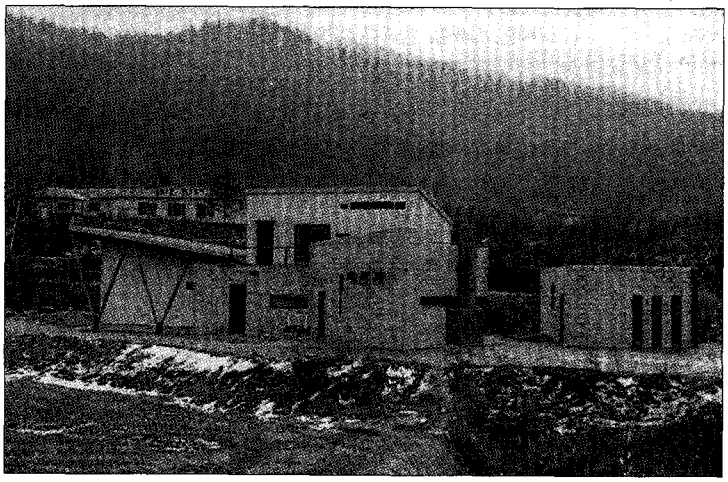


철저한 월동준비로 '따뜻한 겨울나기'

전원의 겨울은 도시에서 느끼는 기온보다 더 춥고 길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도시에서 길들여진 생활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시골생활을 시작한다면
하얀 눈에 뒤덮힌 산과 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잔을 마시는
상상이 얼마나 무모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반 단독주택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낫다.
난방이 잘되어 있어 겨울에도 반팔 입고 살던 아파트생활에
익숙한 이들에게 있어 전원주택에서 맞는 첫번째 겨울은
한마디로 '추위와의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으로 전원주택에서 맞이했던 지난 겨울, 벽난로 앞에서 영화처럼 아름다운 생활을 하리라 기대하며 그저 여느때와 같은 월동준비를 했다가 혹독한 추위와 무릎까지 쌓이는 눈 때문에 단단히 고생을 한 박원영씨는 이번 겨울을 맞이하는 준비가 남다르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폭설과 영하 몇 십도로 급강하하는 기온에 견디려면 완벽한 월동준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실전을 통해 익힌 그의 지론이다. 박씨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보일러청소, 장작패기, 벽난로 굴뚝청소, 정원수 관리 등 겨울을 대비한 전원생활 요령을 알아본다.

♠ 보일러점검, 연료비축은 동절기 필수사항

한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보일러는 가동시키기에 앞서 철저히 살펴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바람직한 자세이며, 또한 연료비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보일러손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료를 태우는 화실벽면의 그을음을 제거하는 일이다. 특히 경유나 등유를 원료로 사용해 연소하는 방식인 기름보일러는 여러 요인에 의해 완전연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을음이 발생하게 된다. 화실벽면에 그을음이 끼면 연료가 더 들어가게 되고, 또 그만큼 열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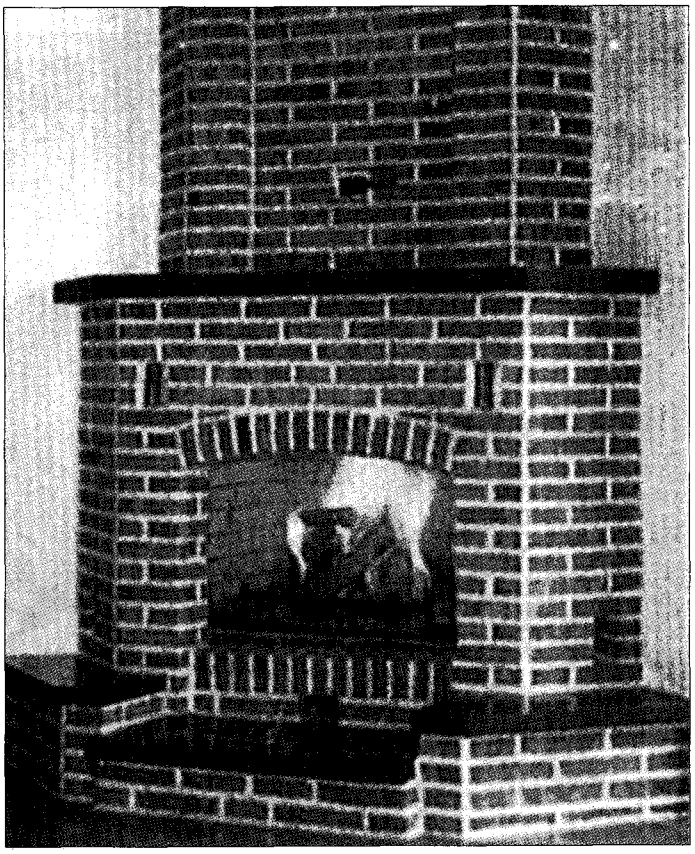
박씨는 겨울이 닥치기 전에 보일러만은 완벽하게 점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화실내부 청소뿐 아니라 보일러 배관 내부에 낀 이물질 청소까지 했다. 그 결과 5~10% 정도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볼 수 있고 한결 따뜻해진 방안에서 겨울을 나게 되었다. 박씨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익힌 기름보일러를 청소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면장갑을 낀 채 연통을 만졌을 때 뜨겁다고 느껴지면 청소를 해야할 시기. 청소를 시작할 때는 먼저 전원을 끄고 기름공급밸브를 반드시 잠근다. 연통과 윗덮개를 분리한 다음 소음기와 열차단판을 차례로 들어내고 철솔로 위에서 아래로 그을음을 골고루 쓸어내면 된다.

보일러조립은 반대순서로 하는데 열차단판을 결합한 다음 가동한다. 통속에 있는 그을음은 보일러를 가동하면 연통을 통해 자연스럽게 밖으로 빠져나가므로 따로 치울 필요가 없다.

그 다음 할 일은 화염감지기의 유리면을 깨끗이 닦는 것이다. 화염감지기는 연소상태를 감지해 연소상태가 고르지 못하면 즉시 가동을 중단시키는 중요한 장치이므로 1~2개월에 한 번 화염감지기를 뽑아 부드러운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버너 밑부분에 설치된 화염감지기의 전면 유리가 더럽혀져 있으면 연료의 낭비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한다.

기름여과기(오일필터)를 갈아주는 일도 잊어서는 안된다. 기름여과기는 물이나 찌꺼기 등이 배관이나 순환펌프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므로 적어도 1년에 1~2회 정도는 갈아주는 것이 열효율을 최대한 높이



▼ 전원주택에서 벽난로는 주난방기기인 보일러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갑작스레 보일러가 고장이 났거나 연료가 바닥났을 때 난방기기로서 제 기능을 톡톡히 발휘한다. 그러나 날씨가 궂은 저기압 기후에는 벽난로를 때지 않는게 좋다. 연기가 굴뚝으로 채 빠져나가지 못해 실내로 스며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는 방법으로 좋다. 그리고 오일탱크 및 기타 배관 등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한번쯤 세심하게 살펴보는 점검이 필요하다. 탱크는 급유 중에 물이 섞여들어가기도 하고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에 의한 '이슬맺힘(결로)현상'으로 물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배수구로 물을 빼주는 작업이 따라야 한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갑작스럽게 보일러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당부한다면 최소 1주일 혹은 그 이상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연료를 확보해야 되는 일이다.

눈이 조금만 내려도 차량통행이 어려운 지역이라면 그 일은 보일러점검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이 된다. 1주일에 한두 번은 보일러실에 들러 보일러 상태와 남아있는 기름양을 확인하는 일은 전원주택의 주인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다.

♠ 벽난로 하나면 거실난방은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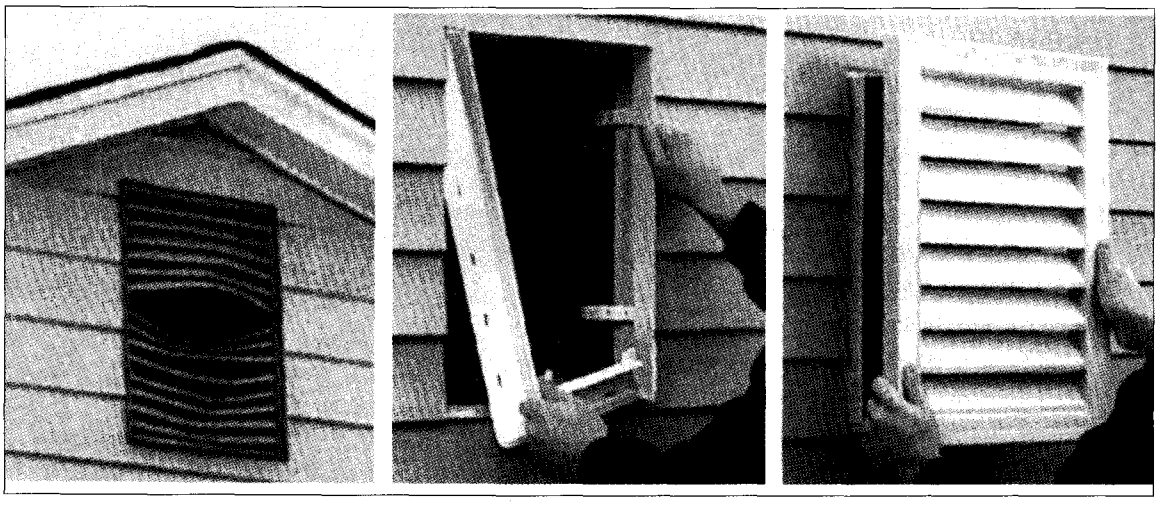
군고구마 익는 냄새와 톡톡 튀는 군밤은 한겨울을 연상하는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데 이와 함께 떠오르는 것이 장작이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이다. 박씨는 보일러가 고장났던 지난 겨울 벽난로 덕분에 몇일이나마 견딜 수 있었다. 그래서 온가족이 거실 앞 벽난로 앞에 모여 추위를 이겨냈던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월동준비로 벽난로 청소하는 것을 빼먹지 않았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여름 동안엔 벽난로를 그저 거실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조금씩 온도가 내려가고 바람이 차가워지는 10월말이나 11월 초가 되어서야 비로서 벽난로는 난방기구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이때 무턱대고 벽난로에 장작을 때는 것보다는 한 번쯤 굴뚝을 청소해주는 것이 열효율면에서 바람직하다.

서양의 집들은 사람이 드나들 정도로 직경이 커 굴뚝청소부가 직접 내부에 들어가 청소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지만 우리나라 전원주택은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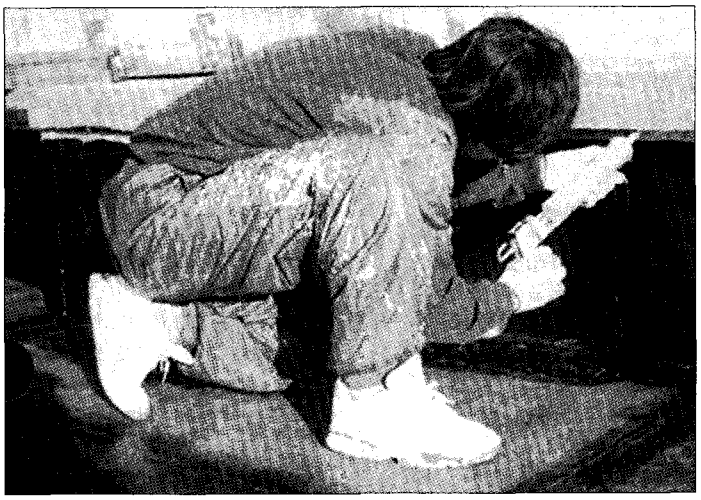
▼ 겨울철 열효율을 높히기 위해 망가진 창문이나 창틀, 환기창을 수리하는 것도 월동준비의 하나이다. 보수가 필요한 환기구나 창문을 찾아내 창틀을 교체하고 재로지 형태의 창으로 시공한다.



디에서도 그런 굴뚝은 찾아볼 수 없다.

우리 현실에 맞는 가장 간편한 굴뚝 청소방법은 지붕에 올라가 굴뚝 안으로 모래주머니를 줄에 매달아 넣은 다음 위아래로 움직여 굴뚝내부의 그을음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벽난로의 역할이 꼭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 벽돌이나 흙 등으로 아무리 기능적으로 잘 만든 벽난로라 할지라도 비, 눈이 내리는 날엔 연기가 굴뚝으로 잘 빠지지 않아 매캐한 연기가 실내에 퍼지기 마련이다. 그 연기 속에 섞여있는 일산화탄소는 인체에 해를 미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궂은 날씨가 계속될 때는 입구가 개방된 재래식 벽난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반드시 가정용 소화기를 벽난로 옆에 둬 만일의 화재에 대비하는데 가급적이면 벽난로 가까이엔 장작, 종이 등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 지붕은 방수와 단열이 중요하다. 지붕에 올라가 이음새 부분을 확인하고 방수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못이 박힌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이상을 발견했을 경우엔 실리콘처리로 누수를 사전에 방지한다.

이외에 벽난로의 월동준비로 4개월 남짓한 긴 겨울 동안엔 필요한 장작을 마련하는 일이 남아있다. 장작은 통나무 원목상태로 구입해 톱으로 토막을 낸 다음 도끼로 쪼개는 것이 비용절감면에서 가장 효과적이지만 그만한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목재소를 통해 이미 적당하게 잘라진 상태로 구입할 수도 있다. 직접 몇번 해보면 요령이 생겨 자신감이 생길 것이므로 알맞은 연장을 마련해 장작패기에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장만한 장작은 충분히 건조시켜 비나 눈에 젖지 않을 장소를 골라 차곡차곡 쌓아둔다.

이때 장작을 가로 세로방향으로 한층씩 쌓아올리는 것도 요령이 필요한데 처음 하는 사람에겐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닐 것이다.

지난해 처음 벽난로를 지폈던 박씨는 서툰 솜씨지만 직접 장작패는 일을 자청했었다. 올해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까지 합세해 일이 한결 수월해졌다는 그는 겨우내 땔 장작을 마련하려면 한달이 족히 걸리므로 일주일 단위로 장작패는 일에 매달릴 계획이다.

♠ 지붕, 창호 등 허술한 곳 찾아 손질

작은 틈새라도 어김없이 찾아드는 외풍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속살까지 시린 찬바람이다. 박씨는 아무리 완벽하게 시공했다고 해도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을 막기는 어렵다고 판단, 문풍지를 사다가 문짝의 테두리를 돌아가며 발랐다. 그리고 격자창의 창호지를 새로 바르면서 가을에 주워두었던 단풍잎으로 보기좋게 멋을 내보았다. 유리창 확인도 그가 한 일 중의 하나. 다용도실의 환기창이 깨져있어 유리

를 갈아주었다.

지은 지 얼마 안되는 집이라 지붕수리는 필요없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붕에 올라가 이음새부분을 확인하고 방수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목조주택 같은 경우엔 특히 방수처리가 중요하며 기와지붕은 혹 깨지거나 빠진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는 사전점검이 중요하다고 한다. 무엇보다 눈의 하중까지 고려한 완벽한 지붕설계가 선행되어야 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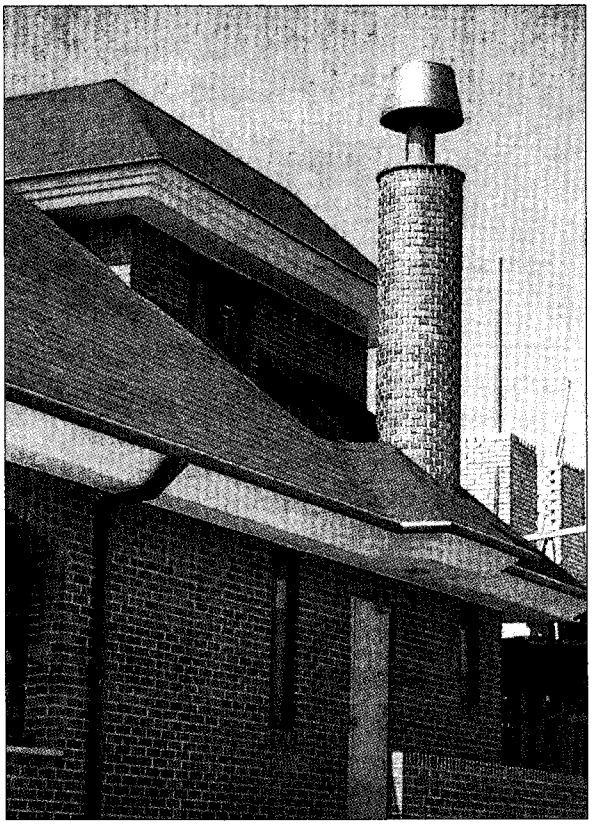
♠ 집 밖의 겨울나기

집 안에서 겨울 맞을 준비가 모두 끝났다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것은 아니다. 전원주택은 집 밖이라고 해서 무방비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법, 영하의 온도에 대비해 철저한 월동준비가 필요하다.

▼ 열효율을 높히기 위해서는 일년에 한두 번은 굴뚝청소를 해주는 것이 좋다. 벽난로의 경우 그을음이 굴뚝내부에 많이 남아있으면 연기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실내로 스며들게 된다. 자칫 소홀하기 쉬운 굴뚝관리는 외부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청소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마당에 있는 수도는 입지 않는 두꺼운 옷으로 찬공기와 직접 닿는 부분을 꽁꽁 감싸준다. 땅 속에 파묻히는 수도관은 겨울에 대비해 시공할 때부터 깊이 묻고 모터는 실내에 설치해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종종 이용하는 수도일 경우엔 얼지 않도록 수도밸브를 조금 열어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폭설이 내릴 수도 있으므로 미리 제설장비를 갖춘다. 박씨는 눈을 쓸어내는 데 안성맞춤인 싸리비와 넉가래를 직접 만들었다. 싸리나무를 엮어 만든 빗자루와 널빤지와 각목으로 손수 만든 넉가래는 눈치우는 작업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들이다.



또한 얼어붙은 비탈길을 오르느라 힘들었던 경우를 다시 경험하지 않도록 모래도 넉넉히 준비해 뒀다. 작은 일에도 세세하게 대비해야 당황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박씨는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을 맞이하는 자세가 남다르다.

겨울철 대중교통은 운행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이때를 대비해 자동차의 월동채비도 완벽해야 안심할 수 있다. 스노우 타이어와 체인은 전원생활에서 꼭 필요한 월동장비, 이외에도 자동차 창에 끼는 서리를 예방하는 서리방지제와 자동차 부동액을 넉넉히 준비해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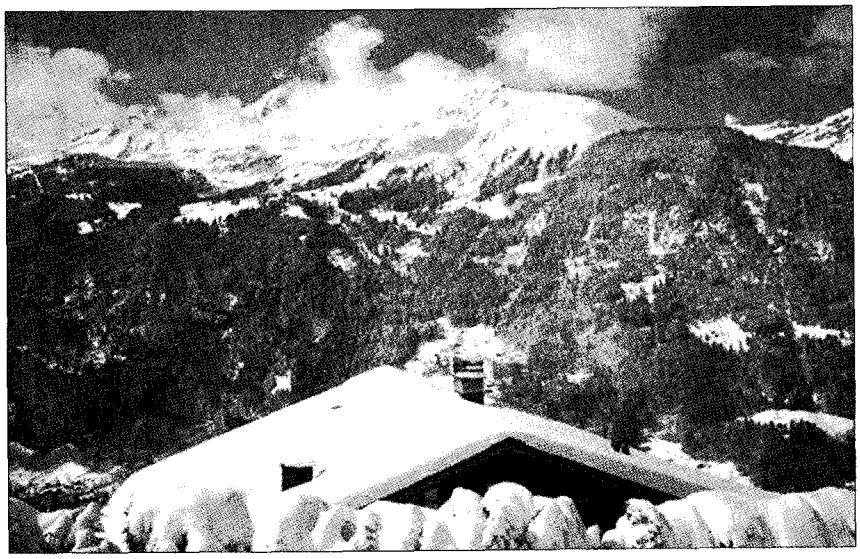
불필요한 나들이를 줄는 것도 전원에서 무사히 겨울을 나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박씨는 외출횟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생활에 유익하다는 생각에 꼭 필요한 나들이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는 방법을 터득했다. 물건구입을 할 때 저장이 가능한 목록은 따로 작성해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입했더니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었다.

♠ 정원수, 잔디 월동준비

봄부터 가을까지는 병충해 방지와 가지치기 등이 정원관리의 대부분이지만 겨울엔 아무래도 영하의 날씨에 대비한 조치가 필요하다. 박씨는 나무기둥 가운데 부분을 짚으로 감싸주고 시들어버린 잔디는 흙을 살짝 덮어준 다음 발로 밟아주는 것으로 월동준비를 끝냈다.

전원주택의 정원일 경우엔 조경계획을 세울 때부터 우리 기후에 알맞은 수종을 선택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없이도 월동준비가 가능하다.



잔디는 자생력이 강해서 깊게 심었을 경우엔 별다른 문제가 없고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잔디를 밟아주는 간단한 작업으로 다음해에도 파릇파릇한 잔디를 즐길 수 있다.

정원수를 짚으로 감싸는 일은 추위예방이라기 보다는 병충해 방지의 한 방법이라고 한다. 병충해가 따뜻한 짚속에서 겨울을 나기 때문에 봄이 되면 나무를 감쌌던 짚은 한군데로 모아 태워버린다. 그리고 나무에 물주기는 심한 가뭄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뜻한 날을 선택해 가끔 주면 된다.

이렇게 해도 뭔가 아쉽다고 느낀 박씨가 준비한 것이 바로 온실이다.

전원주택에서 식물은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한 그는 이번 겨울을 대비해 큰 맘 먹고 작은 유리온실을 만들었다. 비닐이나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온실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미관상 좋지 않고 또 반영구적이지 않아 유리온실을 선택한 것이다.

두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의자 하나만 두면 이곳은 멋진 휴식공간이 되기도 한다. 선룸(Sun Room)역할도 담당하는 온실은 단순히 식물의 겨울나는 장소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열대성 식물을 키우거나 일년내내 싱싱한 채소를 재배할 수도 있다.

온실로 적당한 장소는 햇빛이 잘 들고 경사지지 않은 곳이다.

일년 사계절을 전원에서 보내봐야 진정한 전원생활의 묘미와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박씨는 살면서 조금씩 터득해 나가는 게 전원생활이라며 완벽한 월동준비만이 무사히 겨울을 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또한 흰눈에 덮힌 겨울풍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